신뢰와 혁신 국민과 함께 KBS
2025 KBS 방송지표

KBS 사보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Vol. 780

'가왕' 조용필은 위대했다!

본 공연 시청률 압도적 1위…추석 연휴 시청률 '올킬'



추석 연휴, 대한민국 안방은 '가왕' 조용필이 선사한 깊은 울림으로 하나가 됐다. 10월 6일(월) 방송된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가 전국 시청률 15.7%로 동 시간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최고 시청률은 무려 18.2%를 찍었다.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2부 기준)

"이건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



조용필은 75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연 내내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관객들과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했다. "정식으로 떼창을 해보려 한다."면서 '허공', '그 겨울의 찻집', 'Q'를 연창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별 스테이지 '슬픈 베아트리체'는 KBS교향악단이 빚어낸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조용필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어우러져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했다. KBS 시청자게시판에는 "이건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 그 자체다.", "가요계의 살아 있는 전설 조용필의 단독 공연이라니 조용필과 KBS, 다 전설이다." 등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초대형 LED, 폭죽, 응원봉까지…스태프도 '혼신'

KBS 스태프 수백 명도 가왕의 무대에 품격을 높이고자 혼신을 기울였다. 초대형 LED와 화려한 조명, 폭죽 등 무대장치, 후반작업으로 더해진 CG 등이 환상적인 몰입감을 선사했고,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KBS가 무상으로 대여한 응원봉 또한 공연장을 아름다운 불빛으로 수놓으며 안방 1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10월 8일(수) 방송된 다큐멘터리 〈그날의 기억〉도 최고 시청률 9.1%, 전국 시청률 7.3%를 기록했고,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 특별판〉은 전국 7.0%로 역시 추석 연휴 프로그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KBS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

도하와 하경은 어린 시절 해마다 여름방학에 딱 21일 동안씩만 함께한 소꿉친구다. 하경이 도하를 향한 속마음을 숨긴 채 훌쩍 시간은 흐르고…. 2년 전 어떤 사건을 계기로 둘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하경 앞에 도하가 다시 나타나면서 하경의 일상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11월 1일(토) 밤 9시 20분 첫 방송 되는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안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다. 배우 이재욱이 실력파 건축가 백도하 역과 베일에 싸인 인물 백도영 역을 동시에 맡아 생애 첫 1인 2역에 도전하고, 최성은이 건축직 공무원 송하경 역으로 KBS 안방극장에 처음 입성한다.

〈로얄로더〉, 〈미씽: 그들이 있었다〉 시리즈, 〈인사이더〉 등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민연홍 감독과, 〈키스 식스 센스〉, 〈라디오 로맨스〉 등에서 통통 튀는 대본으로 로맨스물에 한 획을 그은 전유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제작진은 "두 캐릭터의 로맨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드라마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건축이라는 색다른 소재, 주인공들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서사 등 다채로운 에피소드로 가득한 〈마지막 썸머〉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재욱과 최성은의 사랑스러운 '케미'를 확인할 수 있는 KBS 새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는 11월 1일(토) 밤 9시 20분 KBS 2TV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박장범 KBS 사장 ABU 부회장 선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62회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총회에서 KBS 박장범 사장이 ABU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ABU는 이번 총회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부회장직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사(39개국 51개 방송사)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새 부회장이 된 박 사장은 TRT(터키), NHK(일본), RTPRC(중국)와 함께 회장단 활동에 참여한다. 박 사장은 추대 소감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AI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제 연대와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ABU는 196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방송기구로 아시아·태평양 8개 지역, 66개 국가, 226개 방송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TV유치원〉 2025 ABU 대상 수상

KBS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TV유치원〉이 '2025 ABU상 어린이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TV유치원〉 '에그박사의 동물도감-무서운데 귀여워'는 생물 크리에이터 에그박사와 웅박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오래된 나무와 채소밭, 돌멩이 아래 등 학교 곳곳에서 곤충을 만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환경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깨닫는 체험형 생명 존중 교육 콘텐츠다.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TV유치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윤민아 PD는 "KBS는 미래 세대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본격 준비

KBS가 10월 15일(수)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관방송사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박장범 KBS 사장은"20년 만에 다시 APEC 주관방송사로서 국제신호를 제작하는 것은 영광인 동시에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KBS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 옆에 '국제미디어센터(International Media Center, IMC)'를 구축 중이며, 10월 27일(월) 개관식을 열고 국제신호 제작에 돌입한다. KBS는 방송용 신호뿐 아니라, 국내외 방송사가 OTT 플랫폼과 유튜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용 국제 신호를 송출하는 신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KBS부산방송총국 개국 90주년

KBS부산방송총국이 개국 90주년을 맞았다. KBS부산방송총국은 1935년 조선방송협회 산하 부산연주소로 문을 열고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방송이다. 9월 19일(금) 열린 기념식에는 박장범 KBS 사장과 박진현 부산총국장, KBS부산총국 시청자위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지역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소중하게 듣고 챙기겠다."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KBS가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수신료 통합징수 시행…공영방송 서비스 확대

TV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 방송법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10월 23일부터 수신료 통합징수가 본격 시행된다. TV 수상기를 보유한 각 가정 등에는 11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함께 청구된다. 수신료 통합징수로 시청자들의 수신료 납부 편의성은 개선되고, KBS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KBS는 공영방송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통합징수의 효과를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역사 교과서' 명품 대하드라마 제작, AI와 XR 등 차세대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고품격 역사 콘텐츠 제작, 국가적 의제를 이끌 수 있는 명품 다큐멘터리, 국민 감동 특집 공연 대형 이벤트 제작에 매진할 계획이다. 저출생 해결 캠페인, K-컬처 글로벌 확산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이 전용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성에 기반한 AI 혁신을 추진, 재난방송에서 AI 활용과 방송 영상 데이터 구축 등도 진행한다.



제2수신료콜센터 서울 구로구에 개소

KBS 제2수신료콜센터가 9월 22일(월) 서울 구로구에 문을 열었다. 제2수신료콜센터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가동되며, 민원 추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KBS 수신료국과 수탁업체 KTis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박영춘 KBS 수신료국장은 "제2수신료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시청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수신료 통합징수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말했다.





시청자와 함께 울고 웃은 10,000일

<아침마당> 1만 회 금자탑…"함께 사는 가치 나눌 것"

5천만 국민의 분주한 아침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프로그램 〈아침마당〉. 1991년 5월 20일 〈이계진의 아침마당〉으로 첫발을 뗀 이후 장장 34년 동안 시청자와 함께하며 감동과 환희를 선사해 왔다. 시대가 변하고 방송 환경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사람'과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과 소통하며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전해 온 〈아침마당〉이 방송 1만 회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장수 비결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제작진이 꼽은 장수 비결은 다름 아닌 '위로'였다. 9월 24일(수)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 있는 〈아침마당〉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현 PD는 "아침마다 수만 가지 이야기로 시청자와 함께 만나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한다. 밥 같은 거다. 끼니를 거를 순 없지 않나.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달콤한 게 아니라 밥처럼 늘 곁에 있었기에 장수할 수 있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아침마당〉 MC 엄지인 아나운서는 "진행자가 바뀌어도 꾸준히 해올 수 있는 건 '아침마당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다. 답은 시청자 여러분이다. 매일 하는 생방송이다 보니 피드백이 확실하다. 좋아요, 싫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구나…. TV에 그런 방송이 〈아침마당〉 하나인 것 같다. 힘들어도 뚜벅뚜벅 이어가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침마당〉이 배출한 대표적인 스타 국악인 남상일은 "〈아침마당〉 나가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 방송을 보면서 '소리 열심히 해야지, 그게 효도하는 길이야.' 생각했는데, 〈아침마당〉을 통해서 비혼주의자라고 했던 제가 결혼 소식도, 득녀 소식도 가장 먼저 알렸다. 제 딸이 다섯 살인데 〈아침마당〉 음악 나오면 TV 앞에 가서 앉는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남상일은 성공했다고 스스로 추임새를 해본다."며 소회를 전했다.

"<아침마당>은 교과서 없는 인생 학교"

방송인 김혜영은 "〈아침마당〉이 제게는 교과서 없는 학교인 것 같다. 매주 다섯 분이 출연하시는데 그분들이 저에겐 스승이다. '용기를 내라! 잘하고 있어!' 살면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잠깐씩 잊고 좌절하는 일이 많은데, 그분들 이야기가 저를 일깨우고 일어나게 하고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침마당〉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아침마당〉은 9월 29일(월)부터 10월 3일(금)까지 KBS 별관 공개홀에서 특별기획 '시청자와 만날 아침마당'을 통해 매일 200명씩 총 1,000명에 이르는 방청객과 함께 1만 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시청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축제의 무대를 선사했다. 김대현 PD는 "AI 시대니, 디지털 시대니, 불확실성의 시대니, 얘기들 많이 한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지 않나. 사람의 가치, 함께 사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5 우리아이 우리미래 함께해 행복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2025 우리아이 우리미래 함께해 행복해' 행사가 9월 27일(토)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장 일대는 아이와 손을 잡고 온 가족들로 온종일 붐볐다. 본관 내 TV 스튜디오(TS-5)와 라디오 스튜디오(콩)가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됐고, 많은 가족이 제작 현장과 장비들을 흥미롭게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KBS 견학홀에선 방송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는 180명 이상의 작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아이들은 KBS 주변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주제로 그림 솜씨를 뽐냈고, 모든 작품이 KBS 본관 로비 시청자광장에 있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어린이 댄스팀 '사파리'는 개막식 축하공연에서 역동적인 율동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북돋웠다.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에선 아이들이 저마다의 색깔과 열정을 쏟아내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심사위원들은 모든 팀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며 박수를 보냈다.

KBS 시설과 다양한 부스를 체험하며 도장을 받는 스탬프 릴레이는 완주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얻었다. 놀이기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포토월 등이 마련됐고, KBS 관현악단의 축하공연도 열려 가을 나들이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개는 훌륭하다〉

국내 최초 '반려견 사관학교'가 왔다!



대한민국 대표 반려견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가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KBS 2TV로 돌아온다. 국내 최초로 '반려견 사관학교'를 열어 최고 수준의 반려견 일 대 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착하 개 살자'라는 교훈 아래 교장 이경규, 새로 발탁된 교무부장 영탁, 보건 선생님 수의사 김현주, '원조 개통령'으로 불리는 레전드 훈련사 이웅종, 탐지견 교관 출신 훈련사 권혁필, 도그 어질리티 국가대표 훈련사 양은수, 젊고 패기 넘치는 훈련사 최민혁까지 최고의 교사진이 뭉쳤다. 10월 2일(목) 진행된 제작발표회 일문일답.

Q '비욘드 개훌륭'을 목표로 정했는데, 어떤 뜻인지?

이태현(연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포맷보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했던 〈개훌륭〉을 뛰어넘는 게 목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예능적인 경쟁 시스템도 갖춰서 훈련사분들의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Q 영탁님이 이번에 MC로 합류하셨는데 소감은? 역할은 뭔지?

영탁 두 차례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다. 당시 강아지 성대모사도 했고, 또 제가 열 마리 넘는 강아지와 함께 살았던 추억도 공유했던 그런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불러주시지 않았나 한다. 저도 배우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대신 선생님들께 여쭙는 중간 역할, 그리고 이경규 교장선생님께서 추위를 많이 타신다. 옆에서 난로 역할을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웃음)

Q '원조 개통령' 이웅종 훈련사님은 오랜만의 방송 출연인데?

이웅종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힘든 부분까지 섬세하게 표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방송이다.' 생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출연 요청 들어왔을 때 '정말요? 저 한물간 훈련사인데 괜찮을까요?' 했더니 아니라며 칭찬도 해주시더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했다.

Q 김현주 수의사님이 보여주실 역할이 궁금하다.

김현주 많은 훈련사분과 많은 방법이 있는데 어쩌면 내가 옳고 저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현장의 흐름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최초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청자로서도 수의사로서도 훈련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다. 반려동물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걸 훈련사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게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Q 이경규 교장선생님은 영탁 교무부장과 '케미'가 어떠신지?

이경규 처음 같이 해봤는데 아주 잘한다. 오늘도 제가 춥다고 하니까 '담요 가져다드릴까요?'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 교육에 별로 안 좋은 거다. 교장이 조금 춥다고 교무주임이 담요 가져다주는 게 말이 되나? 그러나 우리 학교는 가능하다. (웃음)

Q 이경규 라인이 있다던데 영탁 교무부장 합류시켜 주시는 건가?

이경규 당연하다. '규라인'이거든. 규라인은 지금 이윤석 하나 남았다. 이제 영탁 들어오면 두 명이다. 영탁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영탁님 모시고 개훌륭 사관학교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

Q 마지막으로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마디씩.

권혁필 저는 우리나라 반려견 교육 문화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개는 훌륭하다〉를 통해서 반려견 교육 문화가 좀 더 성숙한 시기로, 안정기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영탁 보호자들과 강아지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무부장 영탁이 되겠다.

이경규 개훌륭 사관학교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다. 반려견을 키우시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입학시켜 주시라. 저희가 깔끔하게 고쳐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마리와 별난 아빠들

KBS1 새 일일드라마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아빠 후보 세 사람. 도대체 누가 주인공의 진짜 아빠일까. 10월 13일(월) 오후 8시 30분 첫 방송으로 찾아온 KBS 1TV 새 일일드라마 〈마리와 별난 아빠들〉은 주인공 강마리의 우당탕 아빠 찾아 삼만리, 피보다 진하고 정자보다 끈질긴 별난 가족의 탄생을 그린 드라마다.

배우 하승리가 사고뭉치 가족을 책임지며 의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녀가장 강마리 역을, 현우가 늘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1년 차 레지던트 이강세 역을 연기한다. 둘의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 속에서 '친자 스캔들'의 중심에 선 마리 앞에 아빠 후보 세 사람이 등장하며 벌어지는 우여곡절이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예정. 류진, 황동주, 공정환이 '아빠 후보'로 캐스팅돼 저마다 개성 넘치는 연기를 선보인다. 박은혜, 금보라, 강신일, 정애리 등 믿고 보는 명품 배우들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는 즐거움도 놓쳐선 안 된다.

하승리는 "혈압 오르지 않는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웃고 공감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고, 현우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첫 장편 연출을 맡은 서용수 PD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재미있게,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공감 가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전 포인트는 재미와 감동, 그리고 연기 보는 맛"이라고 귀띔했다.

▶ 매주 월~금요일 저녁 8시 30분 KBS1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박장범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편집인 이재원 **취재** 이효연 김도영 김석 전현정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 kbssabo@kbs.co.kr
사진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박수연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